

# ‘변강쇠 점 찍고 옹녀’ 국립창극단 창극

## 이름에 ‘변’, ‘강’, ‘쇠’, ‘옹’, ‘녀’ 가 들어가면 50% 할인 제공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2024 찾아 가는 국립극장 선정작으로 국립창극단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를 선보인다. 8월 23일(금) 오후 7시 30분, 8월 24일(토) 오후 3시 총 2회로 대구문화예술회관 팔공홀에서 열린다.

국립창극단 창극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외설로 치부되어 잃어버린 판소리 일곱 바탕 중 하나인 ‘변강쇠타령’을 현대적으로 재창작한 작품이다. 극본과 연출은 연극계 스타 연출가인 고선웅이 맡고, 작창(作唱)과 작곡은 중앙대 전통예술학부 교수 한승석이 맡았다.

창극계 스테디셀러인 ‘변강쇠 점 찍고 옹녀’는 창극 최초로 2014년 제8회 ‘차범석희곡상’ 뮤지컬 극본 부문에서 수상했고, 2016년 유럽 현대공연의 중심인 프랑스 파리의 테아트르 드 라 빌에 공식 초청됐으며, 2020년 기준 누적 공연 횟수 100회를 달성하는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에 변강쇠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시대에 ‘점’을 찍고, 박복하지만



당찬 여인 옹녀를 작품의 전면에 세웠다는 점에서 새로운 인식을 가져온 작품으로 꼽힌다. 작품 속 옹녀 역의 이소연과 변강쇠 역의 최호성은 2014년 초연 때부터 호흡을 맞춰 오고 있다.

18세 이상 관람을 전면에 걸어둔 만큼 대사엔 농도 짙은 은유가 넘친다. 또 하나의 관람 포인트는 저마다

사연을 지닌 전국 방방곡곡의 장승의 유쾌한 이야기다. 국립창극단 단원들의 감칠맛 나는 희극 연기로, 개성 강한 장승 캐릭터 역을 소화하며 극의 재미를 배가한다. 2013년 입단 이후 줄곧 ‘국악계의 아이돌’이라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소리꾼 김준수도 충청장승 역으로 출연한다.

공연은 만 18세 이상부터 관람할

수 있으며, 입장료는 R석 6만 원, S석 4만 원, A석 3만 원이다. 내 이름에 ‘변’, ‘강’, ‘쇠’, ‘옹’, ‘녀’ 중 한 자 이상 들어가면 50% 할인이 적용된다. 문의)053-430-7665

\*예매: 대구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daeguartscenter.or.kr), 대구문화예술회관 053-430-7665, 인터넷 크 콜센터 1544-1555

<자료제공:대구문화예술회관>



### 서미전 개인전 ‘기억의 향기’

8월 19일(월)~9월 5일(목)까지 침꽃갤러리

서미전 작가의 개인전 ‘기억의 향기’를 오는 8월 19일(월)~9월 5일(목)까지 달성군청내 침꽃갤러리에서 개최한다. 서미전 작가가 그려내는 서정적 화풍과 색채의 아름다운 조화가 보여주는 인연의 가치, 생명의 위대함을 느끼며 곁에 있는 이들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겨 볼 수 있다. 전시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 ‘곽훈: 선함의 전이’ 원로작가 초대전

9월 26일(목)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1~5전시실

대구문화예술회관은 9월 26일(목)까지 원로작가 곽훈의 ‘선함의 전이’ 전시회를 1~5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곽훈 작가의 대표작과 신작을 포함한 총 1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이며, 작가의 작품들을 주제별로 나누어 작가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의)053-430-7682

